

지역

비 내리지 않는 강릉, 한국농어촌공사 선제적 가뭄 대응 총력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입력: 2025-06-22 23:00:00 지면: 2025-06-23(11면)

강릉지역 올해 강수량 221mm, 평년대비 56%
강릉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46.5% 그쳐
농어촌공사, 간단급수 시행 등 가뭄 대응 총력

【강릉】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됐지만 강릉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가뭄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올해 강릉지역 누적 강수량은 221mm로 평년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1개월 강수량은 평년 대비 3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곳곳에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던 지난 20일 0시~21일 오전 5시 사이의 누적 강수량 역시 강릉왕산 27.5mm, 강릉어흘 12.0mm 등 내륙과 산지에 비해 적은 양의 비만 내렸다.

이처럼 적은 강수량을 보이면서 강릉지사 관할 저수지 14곳의 평균 저수율은 22일 현재 46.5%에 그쳐 평년대비 6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천저수지는 평년대비 40.5% 경계단계이며, 신왕(50%)·미로(56.8%)·삼교(58.3%)저수지 등 주의단계도 3곳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우선 영농 급수기 용수 부족이 두드러지고 있는 지역의 가뭄 극복을 위해 △두산취입보 수중펌프 설치 △월호평동, 사천진리 간이양수장 가동 △저수율 40% 이하 저수지 간단급수(2일급수, 2일단수)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물절약 현수막 설치 △강우 시 논물가두기 캠페인 등 농민 대상 홍보·교육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형섭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는 “농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안정적 용수 공급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영농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입력: 2025-06-22 23:00:00

지면: 2025-06-23(11면)